

생산성 기준과 노동가치론*

황재홍**

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생산성 기준이라는 통화정책의 원리에 관한 학설사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화폐이론과 통화정책, 가치이론과 통화정책 사이의 이론적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먼저 생산성 기준의 현대적 논쟁을 정리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강제저축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이들의 화폐이론과 통화정책의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생산성 기준을 리카아도의 객관적 가치론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데이비드슨의 논의를 통해 가치론에 기반하는 통화정책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전학파적 가치론이 퇴색한 이후에 생산성 기준과 관련된 논의 속에 등장하는 객관적 가치론의 유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생산성 기준, 노동가치론, 강제저축

I. 서론

생산성 기준(productivity norm)은 일부 오스트리아 학파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의 원리로 물가는 생산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성 향상과 같은 양(+)의 공급충격시 물가하락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현대의 통화정책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 기준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는 과거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생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B00035).

**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조교수, e-mail: zootjhong@hanmail.net

현대 주류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측면에서는 신고전학파와 괴리되어 있었던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이론은 2000년대 초반 학계와 금융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1990년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었으나 세계 도처에서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물가안정이 금융안정을 보장하는가, 물가안정만을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거시안정을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고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과 정책이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한 바 있다.

본고는 생산성 기준이라는 통화정책의 원리에 관한 학설사적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화폐이론과 통화정책, 가치이론과 통화정책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먼저 생산성 기준의 현대적 논쟁을 소개하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강제저축에 관한 논의들을 통해 화폐이론과 통화정책의 연결고리를 살펴본다. 또한 생산성 기준을 리카아도의 객관적 가치론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데이비드슨의 논의를 통해 가치론에 기반하는 통화정책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고전학파적 가치론이 퇴색한 이후에 생산성 기준과 관련된 논의 속에서 등장하는 객관적 가치론의 유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생산성 기준이란 무엇인가

물가수준은 재화의 단위생산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생산성 기준의 원리이다. 전쟁이나 흉년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시 산출물가격의 상승을, 생산성 향상과 같은 양(+)의 공급충격시 산출물가격의 하락을 허용한다(Selgin, 1997, p.10). 통상 주류 경제이론에서 최종재의 상대가격의 변화는 경제주체에게 본질적인 정보를 가져다준다고 보는 반면, 일반물가수준의 변화는 여분의, 불필요한 정보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생산성 기준의 입장에서 일반물가의 변화는 생산성의 상태와 관련하여 경제주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물가의 변동을 인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는 가격 시그널의 정확성을 해치는 것이며, 경제를 '자연스런'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ibid, pp.22-23).

생산요소의 생산성이나 재화의 실질수요에 변화가 없고, 명목화폐량의 변동이나 유통속도의 변화로 총지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중앙은행이 화폐 스톡을 조정하여 가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나 기술의 변화가 없는 경우 물가수준의 변화가 전달하는 정보는 오직 중앙은행이 명목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반면, 생산성이 변한다면 투입물과 산출물의 상대가격 또한 변동한다. 이러한 변화는 화폐가격 구조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가지 방법은 산출물 가격 수준이 변동하게 놓아두는 것이다. 생산성 기준의 입장에서 물가수준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여분의,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산성 변동과 관련된 정보가 산출물가격의 변화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나느냐 요소가격의 변동을 통해 잘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생산성 기준의 입장에서 산출물가격의 변동이 생산성변화를 잘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ibid, pp.23-25).¹⁾

생산성 기준을 옹호하는 쉘진의 경우, 생산성이 변동했을 경우 산출물가격의 조정이 용이할지 물가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용이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ibid, pp.26-28). 3가지의 생산요소로 1000가지의 최종재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한 가지 최종재 생산에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재화의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생산성 기준을 따른다면 통화당국은 생산성 충격에 반응하여 통화량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 다른 최종재와 요소가격의 변화 없이 해당 재화의 가격만 하락하고 따라서 물가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만약 물가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통화량을 늘려 해당 재화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와 생산요소의 가격을 높여야 한다. 생산성이 모든 부문에서 일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생산성 기준에서 조정되는 가격의 수가 제로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 가격의 수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로인플레이션에서 가격조정의 '메뉴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성 기준에 따르면,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예상 물가수준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물가의 변동이 총생산성의 변

1) 반대로 물가안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요소가격의 변동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물가의 변동을 허용하는 정책 아래에서도 자연산출량으로 부터의 이탈은 크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예상치 못한 물가 변동은 예상치 못한 생산성 변동을 보상한다. 이러한 생산성 기준은 명목 소득타겟팅과 연결된다. 셀진(Selgin, 1990)은 빈(Bean, 1983)의 모델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y_t - y_t^* = \beta[(p_t - {}_{t-1}p_t) + \phi(u_t - {}_{t-1}u_t)]$$

정책가의 목표가 완전정보산출량(y_t^*)으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고 할 때 (-)의 생산성(u)충격은 (+)의 물가(p)충격에 의해, (+)의 생산성 충격은 (-)의 물가충격에 의해 상쇄되어야 한다. 만약 $\phi = 1$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명목소득타겟팅이 산출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된다.

생산성 기준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처럼 생산성 기준이 거시안정에 효과적이고 가격조정비용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만약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면 기업가 등은 이득을 얻게 되지만 채권자는 생산성 향상의 이득을 전혀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생산성 변화로 인한 이득은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이 담겨 있다. 유사하게 만약 생산성이 하락한다면 이로 인한 손실도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성 기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는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부담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Dowd, 1995, pp.720-721). 예상치 못한 생산성 변화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 라는 시각은 문제의 본질에 잘못 접근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이 생산성 변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배분한 뒤 생산성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주체들은 계약에 따라 사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가격조정비용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었다. 위의 셀진의 예는 어떤 특정 상품생산에서만 생산성 변동이 생긴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반대로 1000가지 최종재 생산에서 모두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 경우 생산성 기준에서 더 큰 가격조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수보다 생산요소의 수가 적으므로 재화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가격조정비용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Dowd, 1995, pp.725-727). 가격조정비용의 크기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에서 특정 상품 생산에서의 생산성 변동의 사례가 더 많은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변동의 사례가 더 많은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셀진(Selgin, 1990, p.266)은 생산성 기준이 이론적으로는 생산요소 가격지수(a price index of factors of production)의 안정화와 동일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일인당 명목소득의 안정화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명목소득타겟팅에 관한 현대적 문헌에서는 명목소득타겟팅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미드(Meade), 토빈(Tobin)등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Hall & Mankiw, 1993). 이것이 정형화된 모델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빈(Bean, 1983)의 논문이었다. 하지만 명목소득타겟팅이 공급충격시 경기변동을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Taylor, 1985).

Ⅲ. 강제저축과 생산성 기준

생산성 기준에 관한 논의는 이미 1837년 사무엘 베일리(Samuel Bailey)의 저서에서 상세히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미국, 유럽대륙 여러 국가의 저명 학자들이 생산성 기준에 대한 옹호를 나타낸 바 있다(Selgin, 1995). 이 장의 논의는 이들 중 생산성 기준이라는 통화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오스트리아 학

2) Trautwein(2000, p.180) 역시 생산성 기준이 명목소득타겟팅의 범주에 속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파의 강제저축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기 하이에크의 경기변동이론은 『가격과 생산』, 『화폐이론과 경기순환』의 두 저서를 통해 전개되었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경기변동이론을 펼치는데 있어 화폐수량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 비판 중 하나는 화폐이론의 초점이 일반물가에서 상대가격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화폐이론은 화폐와 물가수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일반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주장하고 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화폐량의 변화는 항상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상대가격들은 생산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화폐량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이에크 화폐이론의 이러한 결론은 물론 그의 자본이론과 연결되어 나온 결과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우회생산은 평균생산기간으로 표현되며 이는 소비와 저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간선호를 반영하는 생산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이 화폐적 교란에 의해 깨지게 되면 강제저축이 발생하게 된다. 강제저축은 화폐량의 증가가 개인들의 소비감소를 대가로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연이자율보다 화폐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게 되고 자본재(중간재) 수요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재와 소비재의 상대가격이 변동하게 된다. 소비재산업에 고용된 노동력이 자본재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소비재 생산이 줄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자본재의 상대가격이 더 높은 한도 내에서 이러한 과정은 지속된다. 소비재가격의 상승은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것이 강제저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저축은 소비재 가격이 안정적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Garrison, 2001). 기술진보로 인하여 빠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 신용팽창은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된 신용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입장에서 1920년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1920년대는 '상대적 인플레이션(relative inflation)'의 시기이다. 이 시기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으나 단위생산비용에 비해 산출물가격은 상승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화폐이윤은 증가하고 있던 시기이다. 생산성향상을 반영해야 했을 물가하락이 통화확장

에 의해 저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벌러(Haberler, 1932)는 1924-28년을 전례 없는 산출 증가를 경험한 반면 상품가격은 안정적이었던 시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 상품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로 유통수단 양의 증대를 꼽았다. 소비자물가는 안정되어 있으나 거시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가된 유통수단이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이 점을 전통적인 화폐이론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하벌러의 주장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화폐이론에 있어 신용팽창은 자연이자율과 화폐이자율의 괴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구조에 인위적인 변화를 야기하여 호황과 불황의 굴곡을 낳게 된다. 두 이자율 사이의 괴리에 의한 경기변동은, 경제환경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화폐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시작될 수도 있고, 기술진보 등으로 자연이자율이 변동하였으나 정책당국이 자연이자율에 맞추어 화폐이자율을 변동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시작될 수 있다. 게리슨(Garrison, 2007)은 전자를 '성장 자극(stimulating growth)', 후자를 '성장 수용(accommodating growth)'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후자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에서 성장 수용이 이루어진 대표적 시기는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1990년대 IT버블 시기이다.

위의 이론에 기초한다고 할 때, 기술진보로 재화의 생산량이 증대되었을 때 화폐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신용팽창을 일어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에 의한 물가 하락은 바람직하고 용인되어야 하며 통화정책 역시 이러한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물가는 생산성에 반비례해야 한다는 생산성 기준의 원리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성 증가로 인한 산출물 증가 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화폐이자율을 자연이자율 이하로 낮추어야 하는데 이는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저축이 영구적인 자본축적으로 이어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강제저축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은 거시경제의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로버트슨(Robertson)도 오스트리아

아 학파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생산성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화폐』에서 로버트슨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자명한 것이 못 되며 가치의 표준은 재화가 아닌 생산력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행정책과 물가수준』에서는, 물가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확실한 의무라는 카셀(Cassel)이나 라빙턴(Lavington) 등의 이야기는 경제안정에 대해 너무 쉬운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적절한 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며 이 경우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은행정책의 이론들”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시기에 노동의 가격이 아닌 일반물가 안정화를 통해 대중을 강탈(강제저축)했다고 연방준비제도를 비판하였다.

IV. 노동가치론과 생산성 기준

1. 데이비드슨의 가치론과 통화정책³⁾

생산성 기준을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 중 이러한 통화정책의 가치론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은 데이비드슨(David Davidson)이다. 데이비드슨의 경우 생산성 기준에 대한 옹호는 논리적으로 그의 객관적 가치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데이비드슨은 가치론의 역할이 상대가격을 설명하는데 국한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일반물가수준의 설명에까지 가치론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데이비드슨은 객관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화폐이론에 접근하였다.

데이비드슨은 1919-1938년 사이 *Economisk tidskrift*에 가치론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로 1919, 1922, 1923년에 집중되어 있다. 1899년부터 1909년 그는 화폐이론과 정책을 놓고 빅셀(Wicksell), 카셀과 논쟁한다. 그는 구매력을 의미하는 화폐가치라는 개념

3) 데이비드슨 관련 논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된 2차 문헌에 의존하고 있음.

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간히 자신의 가치론을 드러냈다. 카셀에 반대하면서, 그는 모든 물가상승 특히 전쟁 중 물가상승이 반드시 화폐가치 하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빅셀에 반대하면서, 중앙은행이 이자율정책을 통해 물가변동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화폐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성이 변동할 경우 이는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생산성이 변동하는 경우 생산성과 반대방향으로 물가가 변동하게 놓아두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1919년부터 가치론을 계속해서 다루게 된 계기는 1918년 카셀의 *Theory of Social Economy*의 출간이다. 여기서 카셀은 모든 가치론을 거부하려고 하였다. 카셀의 이러한 작업이 성공한다면 이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데이비드슨은 생각하였다(Uhr, 1971, pp.67-69).

데이비드슨은 개별적 한계효용에 의한 상품의 가치평가에 이외에 다른 가치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의 상품이 존재할 경우 일정량의 한 종류의 상품이 다른 종류 상품 어느 정도의 양에 상응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또는 개별적 가치는 구체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객관적 가치는 보다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데이비드슨은 인식하였다. 객관적 가치는 사람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상품교환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는 주로 상품간 비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가령 a 재화 m 단위가 b 재화 n 단위와 교환), 이 교환비율이 $m+1:n$ 으로 변경되었을 때 이는 어떤 재화의 가치가 변동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데이비드슨은 각 재화의 객관적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일차 자원(노동, 자본, 토지)들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Uhr, 1975, pp.56-57).

그러나 데이비드슨 그의 객관적 가치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이는 “생산력의 양(the quantity of productivity power)”을 측정하는 문제이다(Uhr, 1971, p.74). A 재 생산에 x 단위의 노동(L)과 y 단위의 자본(K) 필요한 경우 A 의 가치는 $A = xL + yK$ 가 된다.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10%의 노동을 덜 쓰고 10%의 자본을 더 쓴다면 $A = 0.9xL + 1.1yK$ 가 된다. 여기서 양자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가 문제로 등장한다. 데이비드슨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 가치론에 관한 지식은 합리적인 경제정책(특히 통화정책)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데이비드슨은 상품의 가치가 항상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다. 상품의 가치는 가격을 통해 관찰되는데 이 상품의 가격은 자기 자신의 가치와 화폐가치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치는 가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폐가치의 변동은 상품 가치를 올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점에서 해로운 것이다.⁴⁾

이런 관점에서 통화당국의 정책목표는 상품의 가격이 항상 그 객관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인구와 실질자본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폐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해야 한다. 생산성이 하락하면 물가는 상승해야 한다. 이는 연 생산물의 화폐가치가 일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데이비드슨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의 규범이며 그가 객관적 가치론을 주장하면서 직면하게 된 '전형문제'에 대한 해법이 된다(Uhr, 1971, pp.85-86).

데이비드슨은 자신의 화폐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카아도의 절대비용이론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데이비드슨은 두 재화 사이의 가치 관계가 변했다면 이는 이 중 하나의 절대가치가 변했거나 양자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폐가치에 관한 논의도 절대비용이론에 근거한 재화 가치 개념과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데이비드슨의 개념에 따르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어 재화와 화폐는 다르다. 재화총량은 개별재화의 합이다. 그러나 화폐총량에서의 화폐 한 단위는 전체의 일부분으로만 의미를 가진다. 화폐단위의 증가는 같은 총량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가치의 문제에는 두 가지 측면(총화폐량의 가치와 화폐단위의 가치)이 있다. 총화폐량의 가치는 단위 시간당 총재화스톡의 회전율의 변화에 의존한다. 화폐단위의 가치는 총화폐량이 얼마나 많은 화폐단위로 나누는가에 달

4) 우어(Uhr, 1971)는 이를 '데이비드슨의 전형문제'라고 불렀다.

려있다. 데이비드슨은 화폐단위에 일정한 객관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통화정책을 주장했는데 이는 재화의 가격은 항상 재화의 객관적 가치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성이 향상되면 가격은 하락해야 하며 생산성이 떨어지면 가격은 상승해야 한다. 즉 상품가격은 그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양과 비례하여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데이비드슨의 중립화폐(neutral money)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Thomas, 1935, pp.43-44).

2. 고전학파 가치론과 생산성 기준

메이슨(Mason, 1963, 1982)의 논의는 노동을 이상적인 가치척도로 간주하는 고전학파의 가치이론이 생산성 기준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금본위제에 대한 고전학파의 옹호는 노동으로 평가된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견해에 기초해 있다. 고전적 금본위제의 원리는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시 화폐임금안정, 물가하락을 의미한다.

메이슨에 따르면, 노동과 금을 모두 가치의 척도로 삼는 것은 가치의 실물적 측정과 화폐적 측정에 상응하는 것이다. 노동이 가치의 실물적 측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표준노동단위는 부재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의 추상적 단위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상대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적 도구에 의존하게 된다. 고전학파의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곡물이 가장 그럴듯한 가치표준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노동의 곡물생산은 장기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날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노동의 곡물생산은 노동의 금속생산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금, 은 등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노동의 근사치로 가치표준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렇듯 가치를 일반적으로 이해될만한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고전적 금본위제라고 메이슨은 주장하고 있다. 고전학파의 용어에서, 화폐적 표준은 다른 사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명목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물을 지칭한다. 가치측정의 표준은 고정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고전적 금본위는 노동으로 측정된 가치표준에 가장 가까운 고정물

이다. 따라서 기술진보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때 물가는 하락하고 화폐임금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금은 등 귀금속을 노동의 근사치로서 가치의 표준으로 삼고자 했던 고전학파의 논의들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스미스(Smith)는 『국부론』에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그로 하여금 구매하거나 지배할 수 있게 하는 노동량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정한 척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비록 노동이 모든 상품의 교환가치의 진정한 척도이지만 상품가치가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노동에 의거하지 않는다. 두 개의 상이한 노동량 사이의 비율을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상품은 노동보다는 다른 상품과 자주 교환되므로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그 상품의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화폐가 일반적인 상업수단이 되면 상품은 화폐와 교환되고 상품의 교환가치는 화폐의 양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금과 은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가치가 변동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변하는 상품은 다른 상품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될 수 없고 노동만이 진정한 가치의 척도가 된다고 스미스는 보았다. 단기적으로 금(은)의 가치가 더 안정적이므로 금(은)이 노동에 대한 근사치로 가치표준으로 사용된다.

리카아도(Ricardo, 2004, pp.86-87)의 저작에서도 같은 논리가 확인된다. 금과 은이 다른 모든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매체가 되는데 실제적인 불편함은 거의 없으며, 가치의 변동이 이보다 적은 변동을 겪는 상품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리카아도는 주장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양의 노동이 동일한 양의 고정자본을 가지고서 지대를 지급하지 않는 광산에서 어느 때에나 동일한 양의 금을 획득할 수 있다면 금은 우리가 사물의 본질에 비추어 가질 수 있는 바 불변의 가치척도에 가까운 것이 된다고 리카아도는 주장했다.

밀(Mill, 1965, p.54)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금과 은만큼 변동의 원인에 취약하지 않은 상품은 없다고 보았다. 생산비로 보더라도 어떤 다른 물건보다 금은의 생산비가 변동이 적다. 그리고 내수성이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양이 연간공급량에 비해서 항상 엄청나게 많으므로 설령 생산비에서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급작스러운 가치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고전학과 가치론의 잔상

고전학파의 가치론이 쇠퇴한 이후에도 가치척도로서 노동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지속되었다. 마셜(Marshall)은 1887년 위원회 증언에서 금 가치의 상승은 금의 상품구매력이 아니라 노동구매력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일정량의 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같은 양의 체화된 노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금은 노동에 비해 가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경우 디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가치표준의 존재와 양립가능하다(Marshall, 1929, pp.32-33).

호트리(Hawtrey)는 『통화와 신용』에서 거시경제의 균형을 소비자지출(consumers' outlay, 오늘날의 용어로는 총수요를 의미)의 안정과 동일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품이 부족해지거나 풍족해질 때, 소비자 지출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일정하다면 소비자지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호트리는 여기서 소비자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 경우 노동(human effort)으로 평가된 화폐단위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상적 상황이 달성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호트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은 그의 논문 "Money and Index Numbers"에 잘 나타나있다.

호트리는 여기서 모든 상품가격지수의 변동은 실질비용의 변화 또는 생산요소가 가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비용을 넓게 정의하여 이윤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결국 비용과 가격은 같게 되며 이 비용의 변화는 실질비용의 변화와 생산요소의 화폐가치의 변화로 구성된다고 본 것이다. 전자는 물가변동에 있어 비화폐적 원인이 되며 후자는 물가변동에 있어 화폐적 원인이 된다. 후자는 생산요소가 가격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수는 직접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트리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트리는 소비자소득(consumers' income)과 소비자지출의 개념을 도입하여 화폐단위의 가치와 노력비용 사이의 관계를 보이려고 했다. 모든 소득은 생산으로부터 나오는데 호트리는 이를 편의상 소비자소득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지출될 때 모든 재화에 대한 수요를 구성한다. 화폐량이나 신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소비자소득과 소비자지출은 같다.

실질비용의 변화는 오늘날의 용어로 총공급곡선의 이동, 생산요소의 화폐가치의 변동은 총수요곡선의 이동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비용 변화(생산성 변화)에 기인하지 않는 가격지수 변동은 소비자소득과 소비자지출의 변동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거시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통화량 공급의 조정을 통해 변동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실질비용의 변화(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격지수는 산출물이 증가(감소)하는 비율만큼 하락(상승)하게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비자소득과 소비자지출의 안정성과 양립한다. 반대로 생산성이 향상될 때 가격지수가 안정적이라면 과잉투자를 야기하게 되고 생산성이 하락할 경우 안정적 가격지수는 경기침체를 야기하게 된다. 호트리니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1억 개의 상품에 대해 1억 파운드의 소비자지출이 행해졌다고 가정하자. 이 때 이제까지 2천만 개의 상품에 대해 2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던 생산자가 생산량은 천만 개로 줄었으나 가격이 두 배가 되어 여전히 2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른 생산자들은 계속해서 8천만 개의 상품을 팔아 8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9천만 개의 상품에 대해 1억 파운드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가는 1/9이 상승했다. 만약 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소비자지출이 1억 파운드에서 9천만 파운드로 감소해야 한다. 모든 생산자들은 총매출액 10% 감소에 직면하게 되고 임금, 이윤, 가격이 같은 비율로 하락하게 된다. 모든 산업에서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의 부정적 효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희소성에 의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생산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들의 매출도 감소되며 다른 생산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줄이게 된다(Hawtrey, 1930, p.79).

즉 호트리에 따르면 오직 생산의 실질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 지수만이 생산과 거래를 지나치게 부추기거나 감소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목표는 화폐단위의 가치를 상품구매력이 아닌 생산요소구매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자본, 토지 등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를 노동을 절약 또는 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면 모든 생산요소는 노동으로 측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화폐단위의 가치를 노동구매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다른 생산요소를 노동으로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호트리의 논문에서 거론된 것은 아니다.

V. 맺음말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생산성 기준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노동가치론 또는 객관적 가치론을 염두에 두었든 두지 않았든, 생산성 기준이라는 통화정책의 원리는 이들 가치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성 기준은 결국 노동 또는 생산요소로 평가된 화폐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통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생산성 기준 옹호자인 셸진이 생산성 기준을 '생산요소가격지수 안정화'라고 부른 것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오늘날 경제이론은 재화의 상대가치를 설명하는 부분과 일반물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이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성 기준 논의는 가치론과 화폐이론,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론적으로 볼 때 생산성 기준은 노동가치론 또는 객관적 가치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리카아도의 가치론을 이어받고자 한 데이비드슨의 논의에서 그리고 호트리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모든 생산요소를 노동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모든 재화의 가치를 노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강한 의미의 노동가치론이 생산성 기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를 상품구매력이 아닌 생산요소의 구매력 나아가 노동구매력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분명 통약의 기준으로 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인식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물론 노동가치론 또는 객관적 가치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의 원리는 결국 물가는 생산에서의 실질단위비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셸진의 주장대로 생산성 기준은 이론적으로 생산요소가격지수 안정화와 같은 것이고 현실에서 생산요소가격지수를 실현하려면 노동환원의 문제가 다시 등장

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생산성 기준을 주장하려면 통약의 단위로서의 노동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투고 일자: 2011. 11. 1. 심사 및 수정 일자: 2011. 12. 8. 게재 확정 일자: 2011. 12. 9.

◆ 참고문헌 ◆

- Bailey, S., *Money and Its Vicissitudes in Value*, Wilson, 1837.
- Bean, C., "Targeting Nominal Income," *Economic Journal*, 93, 1983, pp.806-819.
- Dowd, K., "Deflating the Productivity Norm," *Journal of Macroeconomics*, 17:4, 1995, pp.717-732.
- Garrison, R., *Time and Money: The Macroeconomics of Capital Structure*, Routledge, 2001.
- _____, "Natural and Neutral Rates of Interest in Theory and Policy 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9(4), 2007, pp.57-68.
- Haberler, G., "Money and the Business Cycle," in *Gold and Monetary Stabilization*, Wright, Q.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32.
- Hall, R. and G. Mankiw, "Nominal Income Targeting," *NBER Working Paper* No. 4439, 1993.
- Hawtrey, R., *Currency and Credit*, Longmans, 1919.
- _____, "Money and Index-Number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93(1), 1929, pp.64-85.
- Hayek, F., *Price and Production*, Routledge & Kegan Paul, 1930.
- _____,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Jonathan Cape, 1933.
- Marshall, A., *Official Papers of Alfred Marshall*, Macmillan, 1929.
- Mason, W., *Clarification of the Monetary Standard: The Concept and Its Relation to Monetary Policies and Objectives*,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63.
- _____, "The Labor Theory of Value and Gold: Real and

- Nominal Standard of Value -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Reconsideration of the Gold Standard,”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4:4, 1982, pp.543-558.
- Mill, J.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1965.
- Ricardo, 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iberty Fund, 2004.
- Robertson, D., “Theories of Banking Policy,” *Reprinted in Essays in Monetary Theory*, London, Staples Press, 1940.
- _____, *Money*, London, Nisbet & CO, 1948.
- _____, *Banking Policy and the Price Level*, New York, Augustus M. Kelley, 1949.
- Selgin, G., Monetary Equilibrium and the Productivity Norm of Price Level Policy, *Cato Journal*, 10:1, 1990, pp.265-287.
- _____, “The Productivity Norm Versus Zero Inflation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7:4, 1995, pp.705-735.
- _____, “Less Than Zero: The Case for a Falling Price Level in a Growing Economy,” *IEA Hobart Paper* No. 132, 1997.
- Smith, A., *The Wealth of Nations*, Random House, 1994.
- Taylor, J., “What Would Nominal GNP Targetting Do to the Business Cycle?,”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22, 1985, pp.61-84.
- Thomas, B., “The Monetary Doctrines of Professor Davidson,” *Economic Journal*, 1935, pp.36-50.
- Trautwein, H-M., “The Credit View, Old and N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4:2, 2000, pp.155-189.
- Uhr, C., “Davidson’s Theory of Objective Value: A Transformation Proble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1, 1971, pp.56-91.
- _____, *Economic Doctrines of David Davidson*, Almqvist, 1975.

Productivity Norm and the Labour Theory of Value

Jaehong Hw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arguments on the productivity norm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sistency between value theory and monetary theory/policy. First, it introduces the modern controversy on productivity norm, and examines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monetary theory and monetary policy in Austrian forced saving theory. Second, it deals with David Davidson which tries to explain the principle of productivity norm based on the Ricardian objective value theory. Last, it searches the images of the Classical value theory which appear in the arguments on the productivity norm after the end of the Classical theory.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productivity norm, labour theory of value, forced saving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Economics, Mokwon University, e-mail: zootjhong@hanmail.net